

오늘의 북한 농업 실정은 어떤가?

- 곡물생산의 실상 ② -

국토통일원 · 숙명여대
교수 申喆均

곡물증대의 가능성이 옥수수에 있음을 강조

곡물생산을 높이기 위한 주요 조치로서는 1964년 2월〈당 중앙위원회 제 4기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고 볼수 있다.

이 테제(강령)에서 강조된 것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추진시켜 곡물생산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령이 발표된 후 농촌의 모든 노력을 곡물증산에 집중시켰다.

특히 수리화(水利化),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토지개량, 경지확장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곡물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곡물증대에 가능성이 옥수수 생산에 있음을 강조하고,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옥수수에 대한〈영양단지 가치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밖에 곡물증산을 위해 품종개량과 농작의 집약화, 그리고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의 원칙하에 작물배치를

하며, 병충해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곡물생산량 발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곡물개념은 조곡(粗穀)일뿐만 아니라 薯類도 포함되며, 통계처리시 전답(田畝)의 立苗상태에서 집계를 하기때문에 정곡(精穀)으로 곡물생산고를 계산하려면 立苗計算上 차이분 약 20%를 除하고평균 정미율(精米率)약 70%를 적용시켜야 하며 통계치와 실생산치간의 오차(誤差) 20%를 감해야 한다.

따라서 1982년 알곡생산량 950만톤을 精穀으로 환산하면 약 426만톤이 된다.

식량생산에 부심(腐心)

최근 북한은 「올해(1985년)해방 및 당창건 40돌을 대축제로 맞이하자」는 슬로건 아래 북한 전역에서 농업부문에서의 식량증산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85년 년초 김일성 신년사에서 지난해로 마감된 제 2차 7개년경제계획(78-84)성과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다만 농업부문에서 「알곡 1천만톤」 생산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84년) 이같은

생산목표달성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85년에는 「농업생산을 새로운 단계어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독려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85년 농업부문에서는 「육종사업을 강화하고 논밭과 지력을 높이며 농업생산을 현대화 하고 불임땅 면적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임」은 운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 주력할것을 다짐했다.

북한은 농업관계자 1만 5천여명을 동원한 대규모의 「전국농업대회」(85년 1월 3~6일 평양)을 개최하고 농업부문의 85년도 과업을 제시했다.

여기서 제시된 농업생산증대책으로는 營農 방법에서

○ 適期適作, 適地適作의 원칙관철

○ 품종 배치 및 품종개량

○ 모내기와 장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의 적기실현

○ 風水害 방지대책 강화

○ 농촌관리 운영사업에서는 사회주의 분조관리제 및 작업반우대제

○ 협동농장 재정 및 재산관리 등이며 이의 정확한 실시와 개선등을 촉구했다.

성과도 김일성 치적으로 선전

북한은 또 이와 때를 같이하며 「農動盟」중앙위 제7기 5차전원회의도 소집했다. (85년 1월 29 - 30일 평양) 여기서는 지난해 농업부문성과를 김일성 치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이 조직의 정치선전활동을 적극 강화해 농업생산수준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케 하는등 그 어느때 보다도 식량증산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4년 알곡 1 천만톤 생산달성 선전은 허구

북한이 85년도에 들어와서 더욱 농업생산증대를 적극 선동하고 나서는 저번에는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84년) 알곡 1천만톤 생산달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수치임에 불과하고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북한은 식량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76년, 81년 두차례에 걸쳐 장기적 자연개조사업을 착수하는등 경지면적 확장과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 화학화, 전기화」등 농업현대화를 통한 식량증산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마감된 2차 7개년경제계획 기간중에는 이른바 30만정보간척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등 4대 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함께 농촌현대화 일환으로서도 경지 1백 町步營 트랙터 10대, 화학비료 시비량 논밭정보당 2톤이상 목표달성을 내 세우는 등 식량증산의 제반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그리고 현재 水利안전잠(논밭) 1백 5십만정보 확보와 水利化면에서 1천 7백여개저수지, 2만 3천여개 양·배수장, 12만 5천여개 배수시설등과,

기계화면에서 논·밭갈이, 운반, 낱알털기는 100%, 모내기 95%, 가을걷이 70%, 경지면적 1백정보당 트랙터 6~7대, 자동차 1.5대,

化学化면에서는 화학비료 시비량 1.5톤 이상의 성과를 이룩해 곡물생산 성과면에서도 84년 1천만톤 알곡수확고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이 선전하고 있는 1천만톤 알곡생산량은 粗穀 기준임을 감안할때 精穀으로 환산한다면 약 4백 5십만톤에 불과한 것이다.

식량난문제를 체제존재와 결부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엄격한 식량배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기준의 배급량이 백미 對 잡곡(옥수수, 감자등)이 5 : 5 내지 2 : 8 비율로 6백 그람정도인데서도 그간 북한공산집단이 선전하고 있는 1천만톤 알곡고지 점령선전의 허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식량사정때문에 북한은「먹는문제 해결」을 그들의 체제안정과 결부, 식량난에서 오는 주민불평불만 해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도 최소한 먹는문제 만이라도 해결, 이를 김정일의 배려와 치적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대대적인 식량증산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도 볼수 있다.

식량 증산위해 간석지 개간 새 땅찾기등에 부심

북한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 현 경지면적 한정상태에서 260~360kg정도인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려는 다수확 품종의 육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지면적 확장에도 주력, 간석지 개간 새

땅찾기등 이른바 붙임땅 면적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선전매체들이 전하고있는것을 보면 금년 1월 26일자「로동신문」사설은「농업생산을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자」제하에서 알곡생산을 계속늘이자면 품종개량에 의한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고 이른바「자력 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간석지 개간등 붙임땅면적을 늘이는데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식량증산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북한이 식량증산을 위해 추진한 간석지 개간실태를 보면 54년 西海의 압록강 하구로부터 黃南道 禮成江에 이르는 海岸을 따라 총 33만정보에 달하는 간석지 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지난 1차 7개년 경제계획에는 5만정보개간목표를 6개년 경제계획기간중에는 3만정보개간목표를 설정한바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지난해 마감된 2차 7개년경제계획 기간 역시 10만정보개간을 내 새운바 있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총 3만 8천정보의 간석지 개간에 머무는 부진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토목기술 내자동원등 한계점

이같은 간석지 개간 부진은 그들의 식량증산 한계와도 밀접히 결부되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은 이의 타개노력에 안간힘을 쏟고 금년 平山 郭山郡, 黃南 殷栗郡 黃南 康翎郡 등지서 총 1만 1천 정보개간을 서둘고 있지만 지난 간석지 개간에서 보여 주듯이 군병력 동원 및 돌격대, 청장년층 투입등의 노동력만으로는 토목기술 낙후, 내자동원의 한계를 극복해 이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석지 건설총국」, 간석지 개간 노력 총 동원

올해 1월 27일 북한 「중앙방송」에 따르면 「干潟地 건설總局」에서는 올해(85년) 8월 15일전으로 3천여 정보의 熊島 간석지를 건설하고 10월 10일전으로 5천여정보의 康翎江 간석지를 그리고 12월중순까지는 2천 6백여 정보의 獐島 간석지 건설을 끝내며 제반 간석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제때에 들어지기 위해 「조직지도 사업」을 적극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선전기관들은

「간석지 건설총국」이 내놓은 간석지 건설목표를 크게 선전하면서 해당부문 종사자들에게 8.15해방 40돌과 당 창건 40돌을 「대정치적 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크게 간석지 건설사업을 벌여 나가라」는 등으로 노력배가 선동을 펼치고 있다.

강제 인력동원위해 부산벌어

이에따라 최근 북한 각지의 간석지 건설장에는 이른바 3대혁명소조원을 비롯한 앞으로서 지적인 바와같이 군병력과 청장년으로 구성된 각종 노력투쟁 돌격대의 집중적 투입, 각급 사회단체 및 학교등 노동지원을 위한 人力동원에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럼 최근들어 간석지 개간사업에 노력총동원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난 84년의 농업생산실적이 크게 부진한데다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궁여지책인 것으로 보여진다.

간석지 개간추진 실태

북한은 74년에 간석지 개간사업을 사회주의건설목표의 하나

로 설정하고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0만정보 간석지 개간공사를 추진하여 다사도, 신민도지구 등 대규모공사를 포함한 중소규모 개간공사를 전개, 식량증산을 위한 농경지 확대에 주력해 왔다.

총 간석지 면적 30만 정보중 12만 정보만 농경지로 이용

지역적으로 볼때 북한의 서해안은 비교적 간석지의 차가 크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많은 간석지가 있으며 특히 압록강 하구부근에서 淸川江하구까지와 淸川江하구에서 大同江하구부근에 이르는 해안지대에 가장 많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고 黄南웅진만에서부터 예성강하구에 이르는 해변 일대에도 간석지가 잘 발달되어 총 간석지 면적은 30만정보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농경지 이용가능지는 12만 5천정보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76년 이후부터 농업증산시책방향을 절대경지면적 확장과 토지이용을 제고(提高)라는 쪽으로 돌리고 당 5기12차 전원회의(76년 10월)에서 소위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했다.

이 자연개조 5대방침속에 포

합된 간석지 개간사업 내용은 1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을 조기에 달성한다는것을 골자로 하여 당시 진행중이던 다사도, 신민도 개간사업을 집중전개하여 建材 및 설비생산기지 등 물질기술적 토대조정에 주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이후 자연개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업우선정책에 의한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지의 무절제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즉 77년 4월 최고인민회의 5기 7차회의에서 토지소유, 국토건설, 토지보호 및 관리등 각개 분야별로 존속 되어온 토지에 관한 제 법령 및 규정들을 계획적 종합적으로 개선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土地法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같은 법적기반을 마련하기에 앞서 북한은 1차 7개년 계획(61-67년)중에 5만정보의 간석지 개간목표를 설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해 6개년 경제계획(71-76년)기간에는 계획 목표를 3만정보로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다음 호 계속)